

여수 크루즈관광 훈풍 기대

오션드림호·씨본서전·슈퍼스타아쿠아리우스 내년 상반기 4항차 확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내년 상반기에 4항차의 크루즈선이 여수엑스포 크루즈항 입항을 확정하는 등 여수 크루즈 관광에 훈풍이 기대되고 있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여수엑스포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은 일본 피스보트사의 '오션드림호', 미국 씨본 크루즈사의 '씨본 서전', 아시아크루즈협의체 소속 스타크루즈사의 '슈퍼스타아쿠아리우스'다.

오션드림호와 씨본 서전은 각 1항차, 슈퍼스타아쿠아리우스는 2항차 운항한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크루즈 관광도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 크루즈관광업계도 중국 크루즈 관광이 내년 봄에는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올해 12월 현재까지 여수엑스포항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29항차 5만10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사드배치 관련 중국 정부의 한국방문 금지령에 따라 올해에는 일본선사의 퍼시픽 비너스호, 오션드림호 등 2항차만 여수에 입항했다.

시는 중국 이외 일본, 동남아 등으로 유치활동 범위를 넓히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

지난 10월에는 아시아크루즈협

의체에 기항 희망도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슈퍼스타아쿠아리우스 2항차 기항을 확정했다.

시는 최근에는 단체관광에서 개별자유여행으로 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춰 팸투어와 SNS를 이용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또 크루즈선 방문 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쇼핑' 해결을 위해 지난 7월까지 전남로상가에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81곳의 사후면세점을 지정했다.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는 지난 10월 23일 중국 파워블로거 팸투어부터 투어 프로그램에 포함해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크루즈선 입항 유치와 함께 크루즈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진도군, 고사리 손으로 펼친 '사랑 나눔 저금통 전달식'

자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사랑의 저금통' 기부

진도군 자산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해 동안 고사리 손으로 모은 '사랑의 저금통'을 최근 진도군 희망복지지원단에 기탁했다.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용돈을 아끼고 저축하는 습관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시작했다.

특히 한푼 두푼 고사리 손으로 용돈을 아끼기면서 정성스럽게 모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교육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조금씩 모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진도군 희망복지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동진한 뉘도 모아지면 큰 사랑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하나 둘 모여 마련된 성금이니만큼 값지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 학생들까지 동참하는 '희망 2018 나눔캠페인'에 십시일반으로 모금된 이번 성금은 전남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진도군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대덕읍, 투명한 기탁과 봉사 문화 만든다

기탁자와 봉사자 한자리에 모여 사업성과·2018년 신규복지시책 논의

장흥군 대덕읍(읍장 이재천)은 지난 20일 대덕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17년 복지사업 성과를 결산하고 2018년 계획을 발표하는 '너불어 행복한 대덕, 나눔·봉사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덕 나눔 손플러스' 봉사단 소속 봉사단원 12명과 기탁자 15명이 참석했다.

2017년 기탁금을 활용해 진행한 지원사업은 ▲어머니 밥상 지원사업 ▲저소득아동 공부방 지원사업 ▲성인용 기거귀 지원사업 ▲저소득어르신 방한복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으로 보고됐다.

봉사활동으로는 ▲나눔 손 봉사단 ▲취약계층 연탄 나눔 봉사 ▲사랑의 백미 전달 등이 있었고, 소규모 집수리 봉사를 통해 6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이날 한 참석자는 "기탁금이 어



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이고,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면 앞으로 마음 편히 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천 대덕읍장은 "후원자와 봉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후원내역과

전담내역을 공유함으로써, 후원자는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자원봉사자는 투명하게 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장흥군, 2017 전라남도 감염병관리 '우수기관' 선정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고병원성 AI 대응 체계 우수

장흥군은 최근 전라남도가 실시한 2017년도 감염병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장흥군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과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감염병관리담당을 신설했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비축 물자 관리로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능력을 높인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춘 장흥군은 올해 3월 질병관리본부 현장점검을 통해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공경부암 예방접종

진구 2위,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 전남 1위, 영유아 완전접종률 전남 2위를 달성하는 등 예방접종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감염병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규중 장흥군보건소장은 "감염병은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감염병 발생에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예방 사업을 진행해 감염병 사전 차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무안군, 건강취약계층 한파대비 '건강한 겨울나기' 지원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10명 방문관리 인력 구성

무안군이 건강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등 10명의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을 구성하여 노인,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혈압, 혈당 등 기본검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건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혈관 튼튼 건강교실'을 운영해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과 건강취약계층의 질환별 응급처치 요령 등 보건교육을 실시해 노인이나 환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겨울철에는 특히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자가 한파에 노출될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이 높아지며, 자칫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해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우려도 크다.

무안군 관계자는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으로 철저히 방한을 해야 한다"면서 "추운 날씨에 몸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따뜻한 담요 등으로 보온을 하고 따뜻한 실내로 옮겨야 저체온증, 동상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땃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

장성군